

국악으로 만나는 공연예술 향연 속으로

남도국악원 사업계획 발표

- ‘섬’ 등 우수작품 재정비
- 신기술 융합 콘텐츠 활용
- 해외 순회공연도 재개

국립남도국악원이 그동안 제작된 작품 중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인정받은 우수작품을 재정비, 고정레퍼토리를 선보인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주요 공연과 교육 및 학술 사업 등 2023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다문화 가족 교류체계를 기관 대표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국제 교류 재개를 통해 21세기 선도적인 공연예술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남도국악원은 지난해 대표작품으로 첫선을 보인 ‘섬’을 수정 보완해 최근 부산국악원과 민속국악원(남원)에서 선보였다.

‘섬’은 해방 전인 1943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섬이라는 공간에서 거친 파도와 바람, 자연과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네 가족 이야기를 담담하지만 진솔하고 묵직하게 담은 작품이다. 서남지역의 자산인 섬 노래 등 남도 토속민요를 작품 전반에 사용하면서 한과 멋을 담았다. 오는 26일 제주아트센터에서 올해 마지막 순회 공연을 연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어린이 국악극 ‘우리랑 진도개비’를 선보인다. 대표 레퍼토리인 진도씻김굿도 재정비에 후 해외초청공연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다문화 가족 교류체형’ 사업은 역점사업으로 키운다. 올해는 약 6억 원을 들여 진도 다문화 가족 300명을 선발한다. 고향에 있는 가족을 진도로 초청해 6박 7일 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가족의 자녀가 어머니의 고향인 베트남과 필리핀을 찾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신기술 융합 콘텐츠’도 적극 활용한다. 국악원 전직당 공연장을 활용한 입체영상물 ‘진도의 풍류여행’을 만날 수 있으며 IT기술을 활용한 국악기 전시와 음악감상, 체험실 등을 갖춰 관람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축소되거나 중단됐던 국제교류 사업들도 재개한다. 오는 4월 브라질과 페루 순회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과 베트남, 헝가리 초청 공연 등 그간 중단됐던 해외 공연이 예정돼 있다.



국립남도국악원이 2023년 다채로운 국악사업을 전개한다. 지난해 초연한 ‘섬’(사진 맨 위) 등 우수작품을 재정비에 고정 레퍼토리로 선보이고 해외동포 초청 연수(사진 두번째)를 재개, 남도국악 문화를 전세계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레퍼토리 공연 ‘진도씻김굿’도 재정비에 해외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해외동포와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초청해 전통예술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해외동포 국악연수’ 사업도 추진한다. 올해는 14개국 334명을 선정해 이달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에 참여한 동포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현지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전통문화와 예술공연을 선보이며 국악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

상설공연도 풍성해진다. 매주 토요일 개최되는 ‘토요상설공연’은 시간대를 오후 3시로 변경해 관객들을 찾는다.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원 주단이 선보이는 공연과 함께 명인명장 초청공연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 단체 지원 공연 등 다채롭고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상설공연의

품격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사와 일반인 대상 국악연수 사업을 통한 전통문화 확산 노력도 지속한다.

국악기기를 배울 수 있는 국악문화학교를 비롯해 교직원과 예비교직원,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악연수 사업 역시 활발하게 추진한다. 또한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문화소외지역 어르신과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국악원’과 ‘교실음악회’ 등 다양한 사업들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국악이론과 지역문화예술을 연구하는 학술 총서 ‘북녘의 국악 음악’을 비롯해 남도무형문화예술시리즈 음반 발매와 ‘2023 국악 축제’ 등 학술연구 사업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양석승 힐링콘서트, 내일 남구문화예술회관

김영록 미술사 변경 공연

시와 노래와 유머가 넘치는 제37회 양석승 힐링콘서트가 18일 오후 2시 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한국 감성 충전 & 웃음 치료 연구소가 주최하는 이번 콘서트는 남구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마련됐다.

오프닝 무대로 대통령 수상자인 최미애 원장의 허튼춤이 펼쳐지고 사회는 ‘비 내리는 요양원’ 등을 발표한 가수 채호가 맡는다. 이어 가수 김성배가 ‘이별의 플랫폼’과 ‘연모’를 부르며 가수 손희종은 ‘추억의 소야곡’을 선사한다. 가수 전곡복은 ‘참사랑’으로 무대를 꾸민다.



김영록

등 초대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김영록 미술사의 중국 변경 미술공연 ‘차이나매직’도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다. 공연과 아울러 행운권 추첨 시간도 마련돼 있다. 양석승 소장은 “힐링콘서트는 문화도시 광주를 만들어가는 문화행사로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콘서트를 통해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털고 휴식의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진화 기자

대동문화재단, ‘미래유산 지킴이’ 모집

광주 북구청과 신중년 지원사업

대동문화재단은 광주 북구청과 함께 오는 21일까지 2023년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북구 ‘미래유산 지킴이’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가 사회 서비스를 지역 사회에 제공하고, 향후 (재)취업, 제3섹터 창업, 사회봉사 등 성공적인 인생 3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발 대상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미취업자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많은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인 퇴직자다. 희망하는 사회공헌활동 분야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30시간 이상의 교육 훈련과정 이수 경력이 있어야 한다. 북구 주민은 우선 선발되는 가산점을 부과한다.

비영리법인·단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공공기관, 행정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적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라면 참여 가능하다. 또한 박물관, 도서관, 복지관, 미술관, 이주민 지원센터, 문해교육 학당,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센터에서는 적격한 참여자를 선발할 수 있다. 선발된 참여자는 월 120시간, 연 480시간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활동 시간에 따라 소정의 활동 실비 및 참여 수당을 지급 받는다.

광주 북구 ‘미래유산 지킴이’ 참여자 모집 인원은 5명으로 지원 조건은 만 45세부터 64세까지의 미취업자다. 북구 미래유산지킴이는 북구 미래유산을 중심으로, 미래유산을 발굴·기록화하는 작업과 모니터링 및 정화 활동, 홍보 활동 등 문화재 지킴이 활동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대동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 방법은 이메일, 팩스, 방문접수,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광주관광재단, 대형 여행사 초청 팸투어

예술여행 상품 개발 지원

광주비엔날레 개막을 앞두고 광주관광재단이 전국 규모의 여행사를 초청해 예술여행거점과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팸투어를 실시한다.

광주관광재단은 예술여행 도시 광주 홍보와 예술여행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롯데관광개발, 모두투어네트워크 등 20개 여행사를 초청해 23일까지 팸투어를 진행한다. 이 기간 동안 팸투어 참여 여행사는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는다.

재단은 이번 팸투어를 통해 광주비엔날레 본 전시, 파빌리온 프로젝트 등 광주 전역에서 펼

쳐지는 예술 여행 콘텐츠를 제안하고 체험코스를 선보여 단체여행 상품 개발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팸투어 첫 날은 1913 송정역시장, 비엔날레 전시관, 시립미술관, 시립민속박물관, 공연마루, 사적타워전망대와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 장소인 동국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은암미술관, 양림미술관, 이강하미술관, 갤러리 포도나무 등을 둘러본다. 이후 광주관광재단 개인분야 콘텐츠 및 상품 공모전에 선정된 ‘광주 레트로 예술여행, 충장로 오래된 미래’ 콘텐츠를 경험하며 상품화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이다. /이나라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신문!

전남매일

직장인 “출술이 좋아요”...외식업계 올상

전남농협 협의회 속인물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 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